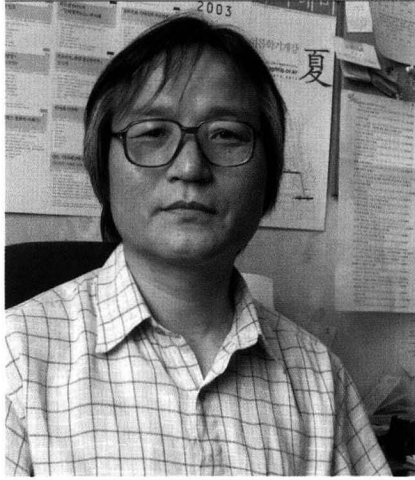


현상학에의 천착, 철학의 본질적 영토를 찾아가는 지적 여정



《주름진 작은 몸들로 된 몸》 조광제 지음 | 철학과현실사 | 406쪽 | 값 15,000원



시집 같기도 한 《주름진 작은 몸들로 된 몸》은 현상학의 기반 위에서 몸 철학의 원리에 집요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철학자 조광제(48·철학아카데미 원장)의 결코 가볍지 않은 연구성과물이다. 그는 책에서 “근원적으로 의식의 굴레를 벗어나 주어지는 몸”을 새롭게 발견하고 메를로 폰티의 현상학을 통해 몸에 대한 사유를 체계화한다. 그가 메를로 폰티 철학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빌려온 것이 바로 ‘몸’과 ‘지각’이다. 그는 메를로 폰티에 이르러 관념론을 벗어나 자신이 생각하는 철학의 근원적인 영역인 ‘세련된 유물론’의 가능성을 발견한다. 특유의 가변적 성질 때문에 철학사에서 배제돼 온 ‘지각’의 의미를 그가 중시한 것도 그 때문이다.

“고등학교 시절 문학회에 가입해 선배들과 술 마시면서 인생과 문학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다른 학생들을 다소 우습게 보는 지적 자부심 같은 것도 있었습시다. 대학에 가서는 사회과학연구회를 만들어 전두환 정권 장악음모를 반대하는 시위를 전개했고, 소위 ‘서울의 봄’에 친구들과 함께 약 300명의 학생들을 이끌고

서울역 광장에 나가 싸웠습니다. 제명되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때부터 학교에서 요주의 인물이 되었지요.”

그는 자신의 철학적 지향이 몸을 기반으로 하는 세련된 유물론을 확립하는 데 있다고 거듭 강조한다. 그는 디지털 혁명이 주도하는 현대사회를 ‘미묘한 사회’라고 규정하는데 소프트웨어적인 차원에서 보면 관념론이 승리를 거두었고 하드웨어적인 차원에서는 기계적 유물론이 승리를 거둔 사회가 바로 현대사회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몸이 주체가 되어 생생한 사회현실과 관계를 맺으며 의미를 생산하는 직접적인 삶이 지닌 궁극적인 가치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현상학은 바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현실의 삶을 모든 인위적이고 기술적인 삶의 근본 터로 보는 데 본질이 있어요. 이론보다 실천이 선차적이고, 사유보다 몸에 의한 실천이 선차적이라는 것, 주변의 사물들과 사건들을 직접 몸으로 부대끼며 느끼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느낌과 행동이 하나로 엮어지는 사대 자체를 중시하는 것이 현상학적인 사유입니다. 이러한 현상학적 사유의 근본정신을 가장 잘 드러내고 주장하는 철학자가 메를로 폰티지요.”

이 책에서 인상적인 대목은 메를로 폰티의 〈세잔의 회의〉를 인용하면서 몸 현상학을 색, 회화, 예술 등과 연계시켜서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다. 예술은 관념의 영역인데, 몸의 지각기능을

중시하는 현상학을 예술을 통해 설명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는 메를로 폰티의 현상학이 결국 예술의 형이상학을 가능케 한다고 설명한다.

“예술이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를 인간에 의해 코드화되기 이전의 상태에서 전신적인 느낌으로 받아들이고 표현하는 데서 성립합니다. 사실 제가 철학적으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예술적인 철학 내지는 철학적인 예술을 위한 형이상학입니다. 그것을 구축하는 데에 아직은 현상학적인 사유가 가장 유효합니다.”

그는 최근의 탁석산, 이진경 등의 철학자들이 철학의 대중화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그 한계를 냉철하게 지적한다.

“철학을 주제로 한 대중적인 글쓰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편적인 지식을 주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삶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가 2000년 설립한 철학아카데미 역시 철학과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하려는 시도에서 출발했다. 1년에 네 학기씩 지금까지 14학기를 거치는 동안 2000명의 수강생을 배출했다. 그는 철학아카데미 운영에 보다 내실을 기하는 한편, 재정적인 문제로 휴간됐던 철학전문지 〈아카필로〉의 복간계획도 아울러 밝혔다. **한민**

취재 김도언 기자

